

올 여름 시원한 물놀이 남원으로 오세요

운봉읍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내달부터 8월 말까지 운영
물방개 워터파크도 29일 개장

백두대간의 장엄함을 담은 남원시 운봉읍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에서 '스테이힐링 워터파크'가 올해 여름에도 선보인다.

남원시에 따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 내 스테이힐링 워터파크가 오는 7월 2일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백두대간 전시관, 백두대간 캠퍼장 등이 위치해 있다. 시는 백두대간 전시관 일원에 스테이힐링 워터파크를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워터파크에는 물놀이 조합 놀이대와 조형 분수, 유아 풀장 등 물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인 벤치와 피클러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내달 2일 개장을 목표로 6월 말까지 시설 점검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물 저장 탱크 청소, 휴게시설 정비 등을 마무리한다.

워터파크는 백두대간 전시관 입장권을 발부반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시관 입장금액은 만 7세 이하와 65세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 내 스테이힐링 워터파크가 오는 7월 2일 개장할 예정이다.

〈남원시 제공〉

이상, 남원시민이면 무료다.

성인과 청소년은 1500원~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는 월요일과 우천시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시는 전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백두대간 생태

계의 환경지표인 애벌레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특별전에는 30여종의 각종 애벌레와 애벌레 오감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지난해 도심에 설치해 큰 인기를 얻었던 물놀이장 '물방개 워터파크'도 오는 29일 다시 연다.

시는 29일부터 9월 중순까지 도통동 당사무소 인근에 물방개 워터파크를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료는 무료이고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수질 관리를 위해 물 저장탱크, 급수, 배수, 소독, 여과기 등을 점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불법 옥외광고 뿌리뽑는다

30여 업체와 간담회...신규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벌

고창군이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군정 2층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과장 주재로 옥외광고업체 30여곳

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심각해지는 관내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여러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군은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방안으로 저단형게시대 확충, LED군정홍보용 게시대 설치, 과태료 부과,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규로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와 제작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2차 계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돈버는 발효미생물산업으로 도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주)SynBio에 산업용 유익균 1억원 판매

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고초균 1종에 대해 국내 바이오 업체인 (주)SynBio와 1억원 규모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이번에 판매한 고초균인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 SRCM100731 균주는 주로 전통장류 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한 토착 발효 미생물로 식품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과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유익 균주다.

SynBio는 계약 체결에 따라 신규 프로

바이오틱스 후보 소재 확보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신바이오틱스 제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해 1억원 규모의 농업회사법인 렛즈팜과 맺은 군주 판매에 이어 두 번째 계약으로, 순창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발효 미생물 분야의 상업화로 탈바꿈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한국형 유용 군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토대로 연구용 군주 4만주와 산업용 군주 3000주를 확보해



국내 토착 발효 미생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또 국내 미생물 산업에 활용 가능한 중

군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해 국내 미생물 산업의 상용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

광양제철, '주니어공학교실' 운영

제철소 직원 일일강사로 초등생들과 과학실험 체험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가 광양지역 초등학생들과 함께 체험형 실습 교육인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직원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과학실험을 하면서 '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올해는 지역 초등학교를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철소 직원 20여 명이 2인 1조가 돼 일일 강사로 활약한다.

이들은 총 800여명의 학생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로 철에 녹이 스는 이유, 녹을 예방하는 방법, 도금의 원리 등 이론 교육과 철판에 구리를 직접 도금하고 철판을 빼대로 움직이는 모형 로봇을 만드는 실습

교육으로 꾸려졌다.

강사로 참여한 강승모 과장은 "아이들 앞에 나서니 긴장되고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함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갖고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마동초등학교 최현우군은 "포스코에서 오신 일일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줘 이해가 잘 됐고 고맙았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하반기에 지역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철이란 소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측면에서 본 철의 친환경성을 주제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해남군 '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남도수목기행' 등 지역 아트투어 실시

해남군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이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 사업은 행촌문화재단의 '예술가와 함께 떠나는 남도수목기행'으로 예술가와 큐레이터가 동행해 해남 지역 아트투어를 한다

행촌문화재단은 '예술과의 만남, 수목체험'을 비롯해 대흥사 '템플스테이', 일지암 '남도소리체험' 등 해남의 문화와 자연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차 문화 체험, 산산-해장 막걸리주조장의 전통주 체험, 남도 한정식과 지역장터

등을 거치는 코스로, 힐링·수목·전통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에는 가수 하림과 해남의 읍유시인들이 함께 풍류남도 예술투어도 한다. 해남의 현대미술 작품과 음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방식의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차례 1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촌문화재단(061-533-3663·홈페이지 <http://haengchon.or.kr>)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새만금 다기능·다목적 해안형수목원 조성

산림청-전북도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에 다기능·다목적 해안형 수목원이 조성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농업융치 내에 국립새만금수목원(조감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이 보유한 도서, 해안, 식물,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목원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에는 1530억원이 투입되며, 김제시 새만금복합도시 내에 151ha 규모로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도서와 해안 식물을 주제로 문화, 전시, 연구, 경관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며 우리나라 섬 식물 전시장도 마련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세계 최초의 다기능·다목적 해안형 수목원으로 만들겠다"며 "새만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과 수목원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